
	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1년 10월 29일(금) 총 2매	 환경특별시 인천		
담당 부서 국제협력 담당관실	담당자 • 중국정책팀장 김혜영 ☎440-3231 • 담당자 안권훈 ☎440-3233				
사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인천-웨이하이, ‘지방경제협력 공동 위원회’ 개최

- 양 도시 지방경제협력사업 추진상황 평가 및 발전방향 등 논의 -  
 - 로봇산업 육성과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28일 중국 웨이하이시와 제4회 ‘지방경제협력 공동위원회’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.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.

한중 FTA 시범도시인 인천시는 지난 2015년 7월 중국 웨이하이시와 지방경제협력강화 합의 이후 무역·전자상거래·관광·체육 등 7대 분야 41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분야별 세부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.

이번 회의에는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국제우편세관과 웨이하이시 중국우정집단 산둥성 지사 등 인천 13개, 웨이하이 11개의 유관부서 및 기관이 참여해 무역·물류, 과학기술, 보건·의료·관광 등 양측의 16여 개 제안 의제를 발표하고 분야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.

특히 △효율적인 한중EMS 통관 관련 업무 협력 확대 △인천 내 중국

수출기업의 위생허가 개선 △의료관광 상품공동개발 △인천시 우수 식품제조업체를 위한 온라인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개최 △박람회 참가를 통한 민간 경제 상호교류 등 코로나 이후 더욱 활발한 교류협력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.

또한, 활발한 교류 협력을 위한 분야별 업무협약식도 진행됐다.

양 도시가 미래전략 사업인 로봇산업의 육성과 교류를 위한 협약을, 인천대학교와 산둥알루니늄대학이 로봇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을, 인천소비자연맹과 웨이하시 소비자협회가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.

나기운 시 국제협력담당관은 “코로나19로 인해 양 도시 간 대면교류는 어려웠지만 온라인 교류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사업을 이어나갔다.” 면서 “어려운 상황이지만 논의를 통해 마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 고 말했다.